



■ SK종합화학, 주룽 아로마틱 공장으로 아·태지역 생산기지 확보



Large-Scale Aromatics Complex

SK종합화학은 지난 8월 26일 싱가포르 주룽섬 석유화학단지내 공장 현장에서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조기행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 김정근 SK가스 가스사업부부장 등 SK그룹 관계자, 림 힝 키양 싱가포르 통산부장관, 베 스완 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매니징디렉터, 오준 駐싱가포르 한국대사 및 글렌코어사, BP 등 합작 파트너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룽 아로마틱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SK 계열사 및 글로벌 파트너사간 JV형태로 설립된 JAC사가 약 24억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주룽섬 석유화학단지내 55만㎡ 부지에 연 40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공장 건설은 SK건설에서 맡을 예정이며, 2014년 3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K종합화학 차화엽 사장은 "이번 주룽 아로마틱 프로젝트로 SK종합화학의 아시아 메이저 플레이어 도약이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며, "울산에 JX에너지와 짓게 될 파라자일렌 공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역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SK이노베이션, 브라질 광구 매각 승인 획득"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덴마크 Maersk Oil社와 체결한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 (SK do Brasil, Ltda.) 매매계약과 관련해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법인 매각이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최종 매각 절차에 속도를 높여 한 달 내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구자영 사장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석유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단계 도약을 이뤄나갈 시기"라며 "투자자금 확보와 광구 보유 재편성으로 효율적인 석유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에너지 자주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이노베이션,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 중국 시장 진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28일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솔라밸리에 위치한 황밍국제호텔에서 SK이노베이션 구자영 사장과 황밍그룹 황밍 회장, 포모사(Formosa)그룹 천성광 부회장 등 3사 관계자 및 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실증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3사는 중국 최초의 태양광사업 시범도시로 지정된 더저우시 솔라밸리에 고효율 저비용의 민간 주거주택을 조성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설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태양광 시대가 도래할 경우, 에너지저장설비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핵심 기술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만큼, ESS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종합화학, 울산에 고성능폴리에틸렌 공장 건설

SK종합화학은 SK울산컴플렉스 내에 약 3,7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3만톤의 넥슬렌(고성능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올해 3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3년 3분기 기계적 완공을 거쳐, 2013년 말 상업 생산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공장에서 생산할 넥슬렌은 SK종합화학이 2010년 말 촉매, 공정, 제품 등 전 과정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기술명을 넥슬렌으로 명명한 고성능폴리에틸렌이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SK종합화학의 기술력이 집약된 넥슬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춘 차세대 폴리에틸렌 제조기술"이라며, "이번 상업 공장 건설로 소수의 메이저 회사가 독점한 고성능폴리에틸렌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동시에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폴리머 시장에서도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설립 선봉장



SK이노베이션은 경기도, 시흥시, SK임업과 손잡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한농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시흥시 글로벌센터에서 경기도, 시흥시, SK임업과 함께 행복

한농원 설립 및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인규 SK임업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한농원은 초화류·관목류 재배 및 판매와 조경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은 행복한농원의 초기 설립 자금을 지원하고, SK건설의 자회사인 SK임업은 조림, 조경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행복한농원 또한 지역주민과 지자체,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설립 선봉장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6월 8, 9일 양일간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소재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를 방문해 SK의 미래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고 밝혔다.

최태원 SK회장이 이번엔 SK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를 방문해 미래그린 기술 개발 현장 챙기기에 나선 것.

최 회장은 대덕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1호라인을 둘러보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배터리 서산 공장 착공식을 갖고 배터리 양산 능력 확대에 나서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최 회장은 배터리 생산라인을 가장 먼저 찾아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연구 현장 방문을 마친 최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의 미래 기술 개발 전략과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그린폴(이산화탄소 플라스틱), 그린폴(청정석탄에너지), 바이오연료 등의 기술에 대한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미래 그린(Green) 기술 개발에 SK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GS칼텍스,
업계 최초로 동유럽 체코에 복합수지 법인 설립**

GS칼텍스가 업계 최초로 체코 카르비나에 복합수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다. GS칼텍스는 지난 7월 12일 체코 카르비나 산업공단의 부지 4헥타르(1만 2천평)를 인수하여 복합수지 생산판매법인인 GS Caltex Czech, s.r.o. 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 최초로 유럽지역 복합수지 사업에 진출하게 된 GS칼텍스는 이번 체코 법인 설립으로 2014년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공장은 올해 말에 착공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GS칼텍스는 정유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아 왔으며, 이미 중국 석유화학산업에는 2006년부터 진출을 시작하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GS칼텍스의 체코 복합수지 법인 설립의 투자 결정은 업계 최초의 유럽 진출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중국 법인 운영에 이어 글로벌 복합수지 제조 기업으로서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시즌 2 시작



GS칼텍스가 진보되어, 아이 여수 등장 근무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10개 지니 봉사대와 여수지역 10개 지역아동센터 400여명의 어린이들을 일대일 매칭하여 '희망에너지교실' 시즌2를 운영한다.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은 지역의 교육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아이들의 꿈과 비전 강화 라는 단일 봉사테마를 설정하여 그 동안 무료급식소 배식 활동, 복지시설 청소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봉사프로그램이다. 희망에너지교실 시즌2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공간 만들기'이다.

지난 4월말부터 2개월 간 각 봉사대는 릴레이 형식으로 퇴근 후 직접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고, 어린이 도서관 꾸미기, 체육실 만들기, 생태텃밭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여수 관내 34곳, 전국적으로는 3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지도 및 정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lobal Energy Plus <캄보디아 지원 사업>

올해 GS칼텍스는 사회공헌 Identity '녹색 나눔'에 부합하는 공익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해외 환경 난민 구호 프로그램으로 Global Energy Plus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GS칼텍스 임직원들과 여수 지역 협회를 및 전국 사설 생활 청소년들로 구성된 Global Energy Plus 봉사단은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GS칼텍스의 첫 해외 봉사 활동이기도 한 이번 봉사 활동은 지난 5월 부터 펼쳐 온 식수 개발, 공중 위생 시설 설치, 아동 교육 지원 등 현지 환경 개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회사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 하고, 임직원 모금을 통해 마련된 708대의 정수기 전달 등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내 나눔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 뿐 아니라 국내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도 나눔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2011년 상반기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6월 2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2011년 상반기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현황설명회에서는 경영기획실장 김형국 상무가 대내외 경영환경 및 회사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GS칼텍스의 전략 방향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허동수 회장은 "상반기의 좋은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져 경영 목표인 'Bridge to the Future'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GS칼텍스의 성장 전략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여수공장 본관 대강당에서도 공장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허동수 회장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 1회 동반성장 협력사 협의회 개최

GS칼텍스는 협력사와의 의견교류 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자 'GS칼텍스 동반성장 협력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건설용역 및 자재공급 대표 협력사 12개사가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2011년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GS칼텍스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협력사 대표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협의회는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며 2차 회의는 하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 허동수 회장, 리첸 중국 청도시 서기 면담 및 2011 중국 국제전자소비 박람회 참석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7월 6일 중국 청도시를 방문하여 리첸(李群) 청도시 서기와 면담을 갖고 리동화공이

위치한 황도 개발구와 청도시를 연결하는 해상대교와 해저터널이 최근 성공적으로 개통된 것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GS칼텍스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청도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 제 18회 GS칼텍스 녹색환경미술대회 "환경은 나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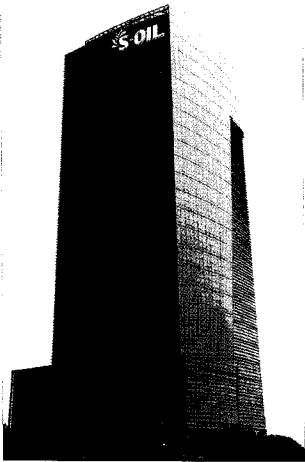
GS칼텍스는 국내 최대규모의 어린이 야외미술대회인 제 18회 GS칼텍스 녹색환경미술대회를 지난 5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88마당과 한얼광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9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되어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GS칼텍스 녹색환경미술대회는 국내 최초로 심사위원들을 교수진으로 구성하고, 그 동안 약 9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비롯하여 학부모 등 총 35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어린이 미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며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주역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GS칼텍스도 녹색환경을 위하여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28일에는 GS칼텍스 공장이 소재한 여수지역에서도 3,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가족 등 7천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GS칼텍스 녹색어린이 골쓰기 대회'가 진남체육관에서 진행됐다.

■ S-OIL, 마포 신사옥으로 본사 이전



S-OIL은 지난 6월 27일 마포 신사옥으로 본사를 옮기고 정 상근무를 개시하면서 마포시 대를 열었다.

창사 이래 처음 사옥을 마련, 63빌딩에서 본사를 이전하여 이날 첫 근무를 시작한 S-OIL은 퓨전국악 공연으로 신 사옥 입주와 창립 35주년을 자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정유회사로 성장하고 처음으로 본사 사옥에 입주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하고 “마포사옥은 더욱 편리해진 업무환경에서 효율적, 집중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수익성 있는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에스-오일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S-OIL, 휘발유·경유 환경품질 5회연속 최고 등급

환경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S-OIL의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최고등급(★5, 국제 최고규격 수준)을 획득했다.

S-OIL은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2009년 상반기부터 5회 연속으로 휘발유와 경유 제품이 동시에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등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가 반기마다 각 정유사의 자유소, 주유소로부터 휘발유·경유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분석을 통해 등급을 평가한다.

■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최우수 사업장 선정

S-OIL 온산공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우수운영사례 시상에서 민간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은 환경부에서 폐수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S-OIL은 1994년부터 수질오염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 TMS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또한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성 있는 운영체계를 정립, 시행해오고 있다.

■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3억원 지원



S-OIL은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소방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S-OIL은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자녀 100명에게 교육비로 각 3백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했다. S-OIL은 2006년부터 해마다 1백명의 소방관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S-OIL 수베이 CEO는 “S-OIL의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 통해 지원되는 작은 정성이 소방관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격려와 위안이 되고, 어린 소방가족들이 더욱 원대한 희망을 갖고 사회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

란다.”며 “S-OIL은 앞으로도 소방가족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인 소방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발대식



S-OIL은 전문성 있는 환경 봉사단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사옥에서 '2011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다.

국내 유일의 대학생 환경·생태 봉사단체인 'S-OIL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은 대학, 대학원의 생물·생명과학 전공자,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 지원자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 봉사활동은 물론 개체 수 증대를 위한 탐사·연구,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으로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장,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전용필 성신여대 생명과학대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지킴이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S-OIL 관계자는 “지킴이단의 국내외 세미나 참가 및 해외 탐사활동 지원, 우수 활동자에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지킴이단원을 추가 선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장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

S-OIL은 지난 7월 9일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울산공장 노사화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장 임직원과 가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슈퍼크린팀, 드림팀, 테크노파워팀, 화합팀, 돌고래팀, 무식돌이팀 등 6개 팀이 화려한 입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풍선 기동 세우기, 줄다리기, 대형 윷놀이, 사바이벌 외나무다리 통과 등 다채로운 게임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감동, 행복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하성기 수석부사장과 이상희 노동조합장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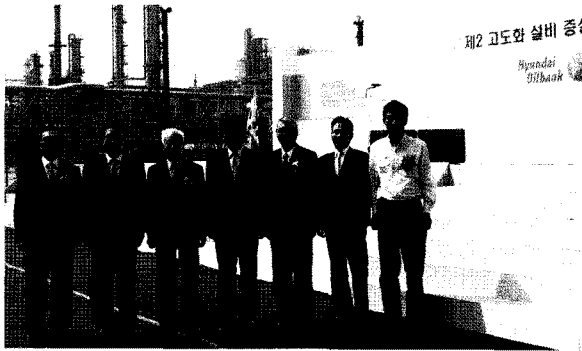


S-OIL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S-OIL은 지난 7월 19일 밤 서울 마포 본사 대강당에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햇살나눔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 활동 지원과 음악적 재능을 지닌 저소득 가정 장애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장애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2006년 3월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리고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 43명으로 구성된 해마다 정기연주회와 희망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순회 공연도 갖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 고도화율 1위 업체 등극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Hyundai Oilbank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9월 1일,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2조 6천억원이 투입된 제2고도화 설비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도화시설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의 중질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하는 설비로, 탄소배출이 많은 중질유를 고품질의 경질유로 바꿔주기 때문에 친환경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첨단설비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6만 8,000배럴 규모의 수소첨가분해공정(HCR)인 제1고도화시설과 함께, 5만 2,000배럴의 제2고도화시설을 준공함으로써 전체 일일 원유처리량 39만 배럴중 12만 배럴의 고도화가 가능해져 업계 최고인 30.8%의 고도화율을 달성하게 되었다. 현대오일뱅크 제2고도화시설은 대산공장 내 108만 3,000제곱미터(약328,000평)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연 공사인원 220 만명, 15톤 덤프트럭 17만대 분량의 토사, 레미콘 트럭 4만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투입되었다. 각종 배관들의 길이를 합하면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920km에 달한다.

이날 준공 기념행사에는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현대백화점 경청호 부회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등이 참석 했으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장, 협력사 관계자, 주요 대학 화공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2천명이 참석했다.

권오갑 사장은 "정주영 창업자님의 개혁정신과 도전정신이 살아 있는 서산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제2고도화 설비가 준공식을 갖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창업자님의 창조적 정신을 계승하여 현대오일뱅크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보너스카드 고객 20쌍, 뮤지컬 초대

현대오일뱅크가 보너스카드 고객 20쌍을 뮤지컬 <루나틱> 공연에 초대한다.

<루나틱>은 2004년 초연 이래 19번의 앙코르 공연과 250여 차례의 지방 공연으로 총 80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작품이다. 정신병원을 무대로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매력적인 의사와 '환자들이 등장해 웃음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오픈런으로 진행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9월 25일까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9월 29일, 응모 고객 중 20쌍을 추첨해 공연 무료 초대권(1인 2매)를 선물할 계획이다.

■ 임직원 "매월 급여 1% 기부한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9월부터 퇴직 시까지 매달 본인 급여의 1%를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9월 7일 현대오일뱅크는 권오갑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으로 '사랑의 1% 나누기 약속식'을 가졌다.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이 일회성이 아닌 매년 연봉의 1%를 기부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여기부는 향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본인이 중단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퇴직시까지 급여

여의 1%를 매월 급여공제 형태로 기부하게 된다. 특히 임직원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동참을 적극 권유해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약정식에서 현대오일뱅크 권 사장은 "위대한 결정을 해 준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모든 직원들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한 일이며,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사무소, 수해복구 감사장 표창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가 동작구청으로부터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지난 9월 2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 말 국지성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즉시 출동해 대민 피해 복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마로 주민들이 큰 상심에 빠졌을 때,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주말에도 이 곳을 찾아 헌신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복구 작업에 큰 보탬이 됐다"며 "동작구 전 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 말, 서울사무소와 영남본부 등 전국 사업장에서 필수 업무 인원을 제외한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수해지역 대민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다.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현대오일뱅크가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사무직(영업, 트레이딩, 재무, 경영지원)과 기술직(공정관리, 정비, 검사, 설계, 생산기획, 산업안전, 환경)으로,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실무 능력평가, 임원면접, 대표이사 면접을 통해 12월경 하반기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www.oilb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가족 1주년 기념, "매일 33000분께 기름 1리터를 더 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가족이 된지 1주년을 맞이해, 주유 고객에게 기름 1리터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국 오일뱅크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매일 33,000명, 총 100만명의 고객에게 기름 1리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참여는 3만원 이상 보너스카드 주유 고객이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자동 옹모되며 영수증 하단에서 당첨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당첨 고객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당첨번호를 입력하면 1주일 이내 휴대폰으로 2,000원 상당의 디지털 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365리터 주유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